

2023년 제7회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9. 25.(월) 15:30 ~ 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 본청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8명
  - 심의위원 : 행정국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옥재은위원, 김소영위원, 나병기위원, 박기홍위원, 박재근위원, 황신애위원
  - 배 석 : (간사) 공익활동지원팀장
- 상정안건 : 12개 기관 23개 안건(320백만원 상당)
  - (현금) 재기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신용보증료 지원 등 3건 (116백만원)
  - (물품) 공원조성용 수목 및 예술치료용 악기 등 20건 (204백만원 상당)

연번	수탁기관	상정안건	기탁금품	
			현금	물품(환산가)
	계	23개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계획과	1개		자동차수판 1기(14백만원)
2	서초소방서	1개		건강음료 28,800점(9.8백만원)
3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2개	16,150,000원	
4	미래한강본부	5개		등벤치, 나무 등(76백만원)
5	중부공원여가센터	1개		진화장비보관함 10통(19.8백만원)
6	동부공원여가센터	1개		포토존벤치, 초화류 등(13백만원)
7	서울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	1개		윤석중 흉상(30백만원)
8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6개		초화류, 의자 등(6백만원)
9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1개		학습지 700세트(14백만원)
10	서울신용보증재단	1개	100,000,000원	
1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2개		빈백소파, 악기(6.2백만원)
12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1개		이동식 미로정원(15백만원)

- 심의결과 : 접수승인 21건, 불승인 2건

간사 개회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간사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개요 보고

### [1번 안건 설명]

- ○○○ 위원 : 이 제품이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품을 서울시에 기증하고 싶다는 의도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 ○○○ 위원 : 테스트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최초 활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제품의 오작동이나 고장 이게 이제 사실은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기부를 받아서 이 회사가 여기다가 최초 설치를 했는데 이제 작동이 돼야 될 때 안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당 공단과 서울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기증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들도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설계 당초 계획된 수동차수관을 설치하고 같은 위치에 기증받은 자동차수관을 하나 더 예비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동 차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 때 그 정거장에 대해서 침수가 된다거나 하는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먼저 작동되는 건 수동이고 자동은 왜 필요한 거죠?
- 도시기반시설본부 : 기증자가 선한 의도로 서울시에 기증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걸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데와 병행해서 고려를 하다 보니 지금 암사역사공원역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게 오작동 우려가 있어서 수동차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 더 덧대어서 자동차수관

을 설치하겠다. 물론 기증받은 대로 경전철에다 설치하면 좋을텐데, 경전철은 지금 신림선 같은 경우는 이미 민자로 다 넘어가 있어서 운영 주체가 다르고요.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 ○ ○ 위원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기부 심사는 이게 공공 업무에 꼭 필요하고, 필요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겠다 할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게 기부 심사인데, 지금은 그 목적 요건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로 보조장치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 기증하겠다고 하니깐 일단 받아서 한번 설치해 보자 이런 논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인 경전철에 설치를 고려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보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추구하는 목적은 ‘무인 경전철에는 모든 시스템이 무인으로 돌아가는데 유독 차수판만 자동 시스템이 없어서 여러 개 정거장에서 홍수가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설치하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라는 접근을 했었고요.

저희도 기존 제품이 상용화돼 있고 객관성을 확보하면 공공 발주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했을텐데, 이게 선후 관계가 계속 물려 있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 심사를 통해서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혹시 개선점이 있는지 도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것을 설치해서 시 차원에서 한번 검증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기부받는 목적이고 큰 이유입니다.

지금 자동연계 시스템까지는 보지 않고요. 자동문처럼 이게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지 잘 되는지, 이게 장기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유사시에만 쓸 텐데 그때 하필이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시에서 관할하고 확인하고 개선안을 같이 찾아보는 목적이 일단 제일 크고요.

- ○ ○ ○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안전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부를

받아서 테스트 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거죠?

- 도시기반시설본부 : 그렇죠. 향후 적용을 위해서
- ○○○ 위원 : 그렇다면 테스트 기간까지는 서울시에 기부를 통해 설치한 걸로 마케팅이나 다른 기관에 홍보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해야 서울시 때문에 다른 곳이 이 제품을 이용했다는 책임성이나 안전 문제가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제약을 걸 수 있는 조건인가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에 서약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선한 의도는 좋지만 나중에 우려하시는 바처럼 어떤 나쁜 영향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품을 서울시에 기증한 것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생기거나, 회사가 큰 이득을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홍보에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받기는 했습니다.
- ○○○ 위원 : 만약에 서약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 도시기반시설본부 : 거기에 따라서 조치는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측에서 서약서 위반에 대해 강력한 행정절차나 이런 걸 말씀해주시면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좀 접근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 주시면 향후에 반영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성능 테스트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게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테스트 결과를 그 한 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대로 결과를 보기에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 글썄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큰 오작동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 위원 : 그거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 도시기반시설본부 : 업체측 사정을 보자면 창업 기업이고요. 이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가액이 1400만원 정도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전체에 다 설치를 한다거나 10개, 20개 여기까지 무작정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첨부 좀 드리면 지금 해당 제품을 1개 설치해서 향후에 괜 찮아서 전체 설치하는 거를 해당 제품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방향성이 이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향후에 입찰 조건이라든가 제품을 발주할 때 해당 기능을 가진 제품을 발주를 할 겁니다.

이 제품이 그 구동 자체가 무슨 되게 어려운 기술이나 이런 건 아니긴 한데요. 다만 지하철에 적합하게 만든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고 이 제품을 한 대에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큰 문제가 없으면은 향후 별도 발주나 공사 계약 조건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그런 성능을 가진 차수판을 설치해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단기간은 아니지만 2~3년 운영하면서 조치하고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부를 받고자 합니다.

○ ○ ○ 위원 :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건데요. 한 대를 기부받아서 시범운영을 해서 개선점이 뭐가 있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방향성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시 전역으로 설치를 해야겠다고 하면, 물론 공개경쟁으로 하겠지만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지금 기부한 업체가 또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자리, 그런 거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상 효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기부 심사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그 업체일 뿐이지만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단계 이런 시스템이지만, 타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식으로 닫히는 그런 구조 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구조 그리고 또 이제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유압식으로 하는 그런 구조들이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기능들을 기재를 하겠지만 꼭 이 업체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는 물론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 위원 : 지금은 효과성이 입증 안 됐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구입을 못하죠?

○ 도시기반시설본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사실 저희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것을 꼭 반영해야겠다, 받아야겠다, 설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서울시에는 기부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자. 효과가 좋으면 이 부분을 좀 더 확산하자’ 이제 이런 의도로 기부심사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 ○ ○ 위원 : 검증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 기능 자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 검증도 그렇고 실제로 기능도 그렇고 같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기능이 사실 확보가 돼 있었으면 적용을 시켰을 겁니다. 왜냐면 소방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도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기능이 다 있고, 무인 경전철도 다 무인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유독 차수관은 이번에 강남역 침수 사례도 보셨겠지만, 차수관이 약간 사각지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좀 높게 설치하고 하겠지만, 최근에 폭우가 찾아지면서 저희가 무인 경전철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시스템상에서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단기간에는 아니겠지만 준비는 해놓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지금 이 사업방향과 맞고, 그래서 기부 심사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 ○ ○ ○ 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 참여하게 되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설명주신 게 이 회사 외에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기능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 생각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또 다른 기업도 테스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매년 경제정책실에서 창업기업팀을 육성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잠깐 몸담고 있다가 왔는데, 사실 창업기업팀의 가장 큰 불편함이 뭐냐면 테스트할 데가 없는 거예요. 테스트베드로 삼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금도 자금이지만 뭔가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애타고 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매년 발표를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베드 기업

으로 선정이 돼야 테스트베드를 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이런 기조니, 서울시의 어떤 창업 육성이나 어떤 기업 육성이나 어떤 신기술 육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좀 더 창업기업한테 좀 더 기업육성 차원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시민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간사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소영 위원 : 말씀 중에 차수판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슬라이딩식, 유압식 등 손으로 표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하셨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서 애는 한번 꼭 시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건지?
- 도시기반시설본부 : 결론은 세워지는 거나 이렇게 되는 데(슬라이딩식)는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요.
- 김소영 위원 : 그것들도 자동 방식이긴 한 거죠?
- 도시기반시설본부 : 네 그렇죠. 접촉이 없었고, 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매월 한 번씩 건설 신기술 설명회를 합니다. 각 분야별로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각 분야별로 신기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입니다’ 라고 자기네 기업을 홍보하고 제품을 홍보하고 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형태로 들어온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마침 이 업체가 의뢰를 해왔고, 자기네들이 그런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니, ‘그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마 타 업체에서 슬라이딩식이나 유압식 업체에서도 서울시에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는 접촉을 할 겁니다.
- 간사 :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 위원 : 특허는 되어 있는 거죠?
- 도시기반시설본부 :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 잘 부탁드립니다.

----- (상정기관 퇴장) -----

- ○ ○ ○ 위원 : 이게 우선 먼저 자동 차수관 설치가 서울시에서 필요성을 느낀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 ○ ○ ○ 위원 :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있으면 편리는 하겠죠. 어쨌든 경전철 같은 경우는 거의 무인화돼서 운영이 되는데 수동차수관 같은 경우는 비가 심하게 올 때 직접 공무원들이나 인력이 나가서 차수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간다는지 하는 방식이니까 편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효과성 입증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기부심사를 통해서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 ○ ○ 위원 : 그래서 첫 번째가 필요성이고 두 번째가 특혜나 기부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자동차수관 기능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된다면 차라리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받아서 테스트 업체를 모집하는 것도 오히려 기부를 통해서라기보다 참여의 기회를 주고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위원 :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준다는 차원에서 그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를 기회를 준다면 괜찮은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앞에 말하는 중에도 테스트베드라고 지금 경제실에서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우수한 업체라고 선정이 되면 테스트베드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도기본 같은 경우에도 건설 신기술 설명회를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그걸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 ○ ○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성 검토와 테스트를 한다면 공개로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자동차수관을 테스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절차 없이 들어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설치했다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그 업체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가 된다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 ○ ○ 위원 : 저도 비슷한 의견이 이게 안전이나 이런 게 걸려 있지 않다면, 그리고 서울시에 다른 추가 사업 계획하고 이권이 없다면, 그러면 사실 좀 심플하게 선택을 해도 될 문제인데요. 여기에 안전이라는 게 걸려 있고 그걸 위해서 서울시는 사실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하는 걸 검증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제품만 테스트하게 되고 다른 유형의 제품들은 테스트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는 시행의 경험을 서울시 안에서 먼저 선점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후에 서울시가 모든 안전한 장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했냐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기부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 위원 : 저도 기부의 순수성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기부의 순수성에 대한 부분이 의심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제로 거기에 맞는 제도나 다른 루트로 들어가야지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논할 자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 위원 : 기부를 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 ○ ○ ○ 위원 : 근데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으로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 ○ ○ ○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일정한 또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하철 입구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 결정을 할 때까지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 사전에 한번 시험해 보는 것으로 해보는 것도, 이게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다른 기업들한테 문호개방을 해서 시도를 취한다거나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호를 개방한다는 그 결정을 할 때는 이미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입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언제가 될지 모르고 또 예산에 방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자발적 기부를 통해 행정의 방향을 정하는 계기로 삼아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 ○ ○ 위원 :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 간사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는 끝난 것 같고요. 각 위원님들 책상에 심의서가 있습니다. 승인 또는 불승인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집계해서 한 번에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모든 안건 심의 후 취합하여 마지막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인, 불승인 체크 다 하셨죠?

## [2번 안건 설명]

- 김소영 위원 : 소방관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기부를 해주시는 거라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소방관분들이 결성하고 있는,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회라든지 하여튼 소방관분들의 후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단법인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국야쿠르트에서 그쪽으로 기부를 해주시면 어떠할지 이런 거 혹시 논의된 바가 있었을까요?
- 서초소방서 : 저희 그런 저희 후생복지를 위한 사단법인이나 이런 개별 그런 단체는 없고요. 저희 심리상담을 위해서, 직원들 ptsd를 위해서 상주하면서 저희를 상담하는 케어 정도는 있습니다.
- ○○○ 위원 : 아마 서초구 관내에 다양한 재단이나 사단법인이나 소방관 활동들을, 이렇게 그것만을 위한 목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수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ngo들이나 활동 기관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취지는 좋으나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받을 때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냐 이런 단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행정 목적 달성의 필수적인 사안이나에 대해서 그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초소방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아침 7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저희 서초소방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 출동 건수가 111건이었습니다. 월계로 따지면 2,990건 정도가 됐고요. 이제 9월달에 나간 게 그렇다 보니 그 횟수도 많고 그거에 대한 심리적 저희 불안감이 크거든요.  
이게 기능성 음료라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있고 수면에 대한 것도 있다 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역할이 감찰 나쁜 쪽도 제가 케어를 해야 하지만 후생 쪽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 김소영 위원 : 혹시 대한소방공제회 이런 곳에서는 소방관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기부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 서초소방서 : 저희 소방 쪽으로는 대한소방공제회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경찰 공제처럼. 근데 그쪽에서는 저희 퇴직 이후에, 저희가 매월 회비를 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저희를 금전적으로는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이런 목적으로 소방 공제회가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논리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시민들이 감사해서 이렇게 뭘 드리려고 해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 서초소방서 : 지금 그게 저희 입장에서 제일 곤란합니다. 차라리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저소득층으로 나눠주기도... 진짜 그분들 성의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도,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갖고 오시는 성의가 있다 보니까. 진짜 제 입장에서 제일 곤란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아까 저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예를 들면 소방공제회에서 만약에 이걸 받아서 소방공제회에서 소방서에 주면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서초소방서 : 그건 제가 검토를 안 해봤어요.
- ○○○ 위원 : 이 음료는 그러면은 근무 시간에 먹나요 아니면 퇴근하고 먹나요?
- 서초소방서 : 예 근무 시간에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왜냐하면 이 음료가 스트레스 해소하고 수면 케어는 약간 나른 해지거나 졸음이 올 수도 있는 음료인데 근무시간에 먹어요?
- 서초소방서 : 네 제가 생각한 건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24시간을 근무하고 또 48시간이 휴무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할 때는 스트레스 케어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퇴근하면서는 이제 수면 케어를 먹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간사 : 이상 질문 마치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상정기관 퇴장) -----

- ○ ○ ○ 위원 : 보통 이렇게 고맙다고 수고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부금 처리하는 않잖아요.
- ○ ○ ○ 위원 : 지금 이 회사 (주)에치와이가 한국 야쿠르트 이름 변경한 건데요. 한국야쿠르트 설립하신 분이 70년대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90살 되시는 군인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제복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선진국에서도 제복 입은 분들은 존중하고 이런 문화인데...
- ○ ○ ○ 위원 : 존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 ○ ○ ○ 위원 : 뭐가 있겠습니까?
- ○ ○ ○ 위원 : 한국야쿠르트가 저희 적십자사에 기부를 참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헌혈자들이 헌혈을 하게 되면 야쿠르트를 한 개씩 주는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공헌 측면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그런정도..
- ○ ○ ○ 위원 : 소방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해서 여러가지 후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기부를 받아서 음료를 마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구르트에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 대상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견 아닌 것 같습니다.
- ○ ○ ○ 위원 : 심의결과 하고 넘어가시죠.

### **[3~23번 안건 설명]**

- 위원장 : 문제 있으신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의견없음) -----

### **[심의 결과 취합]**

- 위원장 : 심의 결과 오늘 12개 기관의 23개 기탁 건 중 10개 기관 21개 기탁 건에 대해 접수를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스마트 자동차수판, 서초소방서 건강음료 기탁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절 잘 보내시고요.